제 1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 No. 1

대학	카자흐 국제 관계 및 세계언어 대학교	학과	한국어학과	학년	4학년	이름	신 이리나

3등

친구

우리 살고 있는 시대에서 사랑, 우정 같은 감정적인 것보다 명예, 재산 같은 물질적인 것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모양이다. 사람들이 끝이 없는 욕심 때문에 같은 가족 식구들끼리 마저 서로 미워해 주고 배신할 경우도 많이 있다. 이에 따라서 이 세상에 정말로 친한 친구를 만나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돈보다 친구들이 더욱 중요하다는 러시아 속담이 있다. 그 말에 의하여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순수한 좋은 친구를 만나기 십상이 아니다.

친구란 내가 너이고 네가 나인 것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 한마음이 된다. 내가 사고를 치던가 불행할 때 항상 와주고 위로해 주는 친구보다 내가 무지 행복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친구가 좋다고 본다. 내가 너무 불쌍해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나의 큰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껏 기뻐해 주는 친구가 한명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친구를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써 공부했을 때 만났다. 흔이라는

성균관대학교 SUNG KYUN KWAN UNIVERSITY

제 1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 No. 2

대학		학과		학년		이름	

베트남 사람이고 아주 명령하고 순수하고
지혜로운 여학생이다. 22살인데 당연한
학적 범위에서 커다란 경험을 받은 사
람인데다가 한국어를 한국인처럼 유창하
게 한다. 우리 한국에서 있었을 때
길거리에서 한국사람이 길을 물어보면
끈 언니가 자세히 설명해 주기 때문에
한국사람마저 끈이 한국사람이 아닌 것
을 알아보지 않았다. 끈이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다. 끈 언니가 나를
올바른 길로 살리게 해 주는 듯한다.
우리 목사님이 끈에게 한국이름을 만들
어 주셨다. "예쁜 마음이라는 뜻이 있
는 미영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어
울린 것 같다.
미영이 가족 형편이 안 좋아서 미영
이 사춘기 때부터 일해야 하게 됐다.
어머님과 아버지 이혼하시고 끈이 맏이
딸이어서 항상 돈을 벌기 위하여 고생
하는 어머님께 도와 주면서 와기보다
맡이 어린 남동생을 돌봐 주었다. 대
학교에 입학했 때 시험 성적이 높이
나와 가지고 학비를 걱불하지 않은데다
가 장학금을 꼬박꼬박 받았다. 하지만

성균관대학교 SUNG KYUN KWAN UNIVERSITY 1398

제 1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 No. 3

대학		학과		학년		이름	

절약해서 먹고 살면 창학금이 부족했으니 여러 가지 알바를 부지런히 해 보았다. 아침에 대학교로 나오고 어후에 식당에서 베이터로써 일하거나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한번도 결석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밤에서 한국어를 머리가 터질 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일년 후에 통역원으로써 일할 만했으며 더 일년이 지나간 후에 전문적인 통역원이 됐다.

여기 저기 번 금액을 나누어서 한 부분을 어머님께 보내 주고 나머지 부분에서 오십달러로 책을 사고 독서하고 나머지 돈을 생활비로 썼다. 언니의 방에 들어오와 마와 눈에 닥 뛰는 건이 책으로 꽉 차는 책상이 있다. 그중에서 소설이나 역사, 한국사, 문화, 경제, 심리에 대한 한국어로 나와 있는 책들뿐이었다. 언니의 견해로는 책과 둘이서 하는 공부가 조화되면 사람에게 제일 효과적인 교정이란다. 인터넷, 텔레비전, 기타 정보통신보다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중요하기 짝이 없단다.

언니와 함께 사점에 책을 사러 가기를 무지 좋아했다. 왜냐하면 책 체목만 보면 재미있는 지 이식할 수가 없어서

성균관대학교 SUNG KYUN KWAN UNIVERSITY

제 1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 No. 4

대학		학과		학년		이름	

차례를 자세히 보아야 되니 언니의 도
움이 자주 필요했다.
내가 한국에 가기 전에 부모님과 멀
리 떨어져 살지 않았음으로써 한국에서
많이 힘들고 외로워했다. 하지만 미영이
언니 덕분에 내 의지가 강해지고 과립
심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내가 불쾌할
때나 기운이 하나도 없을 때나 나를
항상 웃기고 힘을 주는 언니이다. 또한
내가 경기에서 일등하거나 좋은 일이
생길 때 언니가 항상 곁에 있고 같이
놀아 준다.
우리 언니와 못 본 지 벌써 일년이
됐다. 우리 같은 나라 사람이 였으면 좋
겠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인터넷 통해
서 자주 편지를 서로서로 써 주지만
막상 마주 보지 않아서 마음이 속상하
다. 언니의 목소리를 생일날 때 전화로
들은 순간에 숨통이 막혀 가지고 마음
이 뭉클했다. 어설 생일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바로 그 전화였다.
내 곁에서 친구들이 훈하지 않아서
괴로워할 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젠 정
말로 순수하고 신뢰스러운 친구 한명을
만나게 되어서 난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균관대학교 SUNG KYUN KWAN UNIVERSITY

제 1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 No. 5

대학		학과		학년		이름	

단연한다. 우리 언니와 이심전심처럼 고
통할 때 서로서로 배려해 주니까 우리
만남이 우연한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러므로 다시 만날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

100

200

300

400

500

성균관대학교 SUNG KYUN KWAN UNIVERSITY 1398